

## 2022년도 추수감사절 말씀묵상교제

진행순서 : 기도 → 찬송 → 성경봉독 → 말씀묵상 → 은혜묵상 → 개인/합심기도 → 주님기도

-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 **찬송가** - 307장 (신 588장)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 **성경봉독** - 시편 138편을 천천히 합독 또는 봉독합니다.
- ❖ **말씀묵상 (감사의 이유)**
  1. 올 추수감사절에 묵상할 말씀에는 우리의 만족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시다. 우리에게 관계된 일들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8절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인자하심(더 정확하게는, “책임지심”)을 가지고 지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 본문의 앞 부분에서 본 시편을 기록하는 “다윗”이 어떻게 8절의 고백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a. 먼저, 3절에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이 지쳐 쓰러지려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영혼에 힘을 실어주시는 분,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 b. 둘째로, 6절에서,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자신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심을 믿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 c. 마지막으로, 7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은 다윗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이 공적인 삶이건 개인적인 삶이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3.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오늘 시편 138편을 노래하는 다윗처럼, 그리고 더 친근하게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겻세마네에서 우리를 위해 밤을 지새우시며 간구하셨던 것,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십자가를 무사히 지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리에 힘있게 서기 원합니다.
  4. 사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어도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였기에,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8절의 “우리에게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리고 주권적으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변영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결국, 그 결과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취하신다는 것이지요.
  5.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감사의 이유가 여러가지로 표현되는 중, 이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이 견고하기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천국백성의 삶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 ❖ **은혜 묵상**
  1. 그런데 과연 이러한 고백과 비슷한 일들이 2022년 한 해 중에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남았는가요?
  2.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지속되기 원하시는가요?
  3. 개인적으로 또는 함께 그 고백들을 묵상하거나 나누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집시다!
- ❖ **기도하기** - 묵상한 내용을 살피면서, 천천히 기도하신 후, 주님기도로 묵상을 마칩니다.